

Sojourning Description in Boston

보스톤 滯 留 記

白 麟

(서울대학교 附屬圖書館 閱覽課長)

지난 해 9월 미국으로 부터 돌아와서는 이것 저것 밀렸던 일을 처리해야 할 것도 있었고 또 열람과로 전보되면서 서고의 정돈, 열람실의 환경정리, 과내 사무분장 등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야 다소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수 있게 된 것 같다.

도서관협회의 원고 청탁이 있기에 미국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제목은 「Boston 滯留記」라고 붙여 보았지만 紀行文으로서의 形式이 맞지 않는 글이고 Cambridge에 있을 때의 手記라고나 할까, 지난 일을 되새겨 적어 보려는 데에 불과하다.

내가 하버드 대학교 연경학 연구소의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갔던 것은 1969년 10월 22日이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가을이었다. 날씨도 맑게 개였고 또 환송해주는 선배와 친구도 많았었다.

그날 下午 2時 30分 출발인 Northwest 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미국에는 처음 가는 길이거나 비행기도 난생 처음 타보는 경험이라 어쩐지 불안한 느낌마저 들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왼쪽 날개 바로 뒤인 창가였다.

창문가라고는 하지만 열게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착된 대용 유리의 타원형 창문이다. 시원한 공기가 必要할 때는 천정에 붙어 있는 조그만 산소 구멍을 돌려서 공기를 마시게 되어 있었다. 出發시간이 되어 機體가 무섭게 요동하면서 엔진 소리는 더욱 요란해지고 활주로를 쓴살같이 달리더니 그 힘에 밀려 이륙한 비행기는 눈깜짝 할 사이에 벌써 관악산을 아래로 두고 있었다.

스튜어디스 2名이 통로에 나와서더니 救命袋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기차나 연락선을 탔을 때는 그와 같은 설명이 없었는데 유독 비행기에서만 救命袋 시설과 벨트 착용에 대한 지시가 수시로 있으니 오히려 不安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日本 東京의 羽田空港에 도착한 것은 1時間 40分 후인 오후 4時 15分 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1965년 9월에 日本의 각 도서관을 시찰하기 위하여 동경에 왔던 일이 있지만 그때는 부산에서 神戸

까지 아리랑호 배便을 이용하였는데 28시간이나 걸렸었다.

그러던 것이 비행기로는 1시간 30分 밖에 안걸리니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행기로 일본에 와보니 일본은 참으로 가까우면서도 마음대로 오기 어려운 곳이고보니 먼 나라라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서울을 떠날 때는 맑았던 날씨가 동경에 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동경 羽田 비행장의 대합실에 들어가 1시간 30分가량 기다렸다가 같은 비행기에 탑승 했다. 이 비행기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직행하는 것으로서 도중 일본의 동경, 알라스카의 앵카라지, 시카고를 거쳐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였다.

나는 미국에는 初行이었고 게다가 英語도 能通치 못하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途中에 바꾸어 타지 않은 Line을 택하였던 것이다.

동경을 떠난것은 下午 6時頃이었는데 밖은 이미 어둠에 깔려있었다.

나는 흥분된 감정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맥주 하나를 청해서 저녁식사를 했다.

그런 같으면 위키스를 한잔 요구 했을 것인데 잘못하여 술 못하는 것이 5個月이 되었다.

얼마나 날았는지 모른다. 새벽녘에 알라스카의 앵카라지에 도착했다. 미국에 입국수속을 하고,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알라스카의 앵카라지를 출발한 것은 아침 5時경이었다. 상공을 날으면서 下界를 내려다 보니 視野는 전부 雪山이다. 여기는 北極이기 때문에 萬年雪이고 아직도 氷河時代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십길 눈속밀에는 氷河가 흘러내려 地形 요동이 일어나고 있을 것만 같았다.

비행기는 5시간을 난 뒤에 미쉬간호의 남단에 있는 시카고에 도착했다. 이 시카고는 그 옛날에는 「쟁」이 많기로 유명했던 도시이다. 지금은 북부의 교통 중심지이며 미국의 유명한 공업도시로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미국 도서관협회가 여기에 있고 또 항공 도서관이 이곳에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 도서관인의 관심을 자극

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나는 시카고 비행장에서 國內線으로 바꾸어 탔다. 나는 英語도 유창하지 못한데다가 시카고 비행장이 얼마나 크던지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장소를 찾아 가느라 한참 절절했다.

안내원에게 여행계획서를 보이면서 묻고 물어 Gate No. G8을 찾아가서 비행기표를 보이니 곧 탑승하라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대합실의 시계는 下午 5시 30분을 가르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시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비행기 좌석에 몸을 던지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내 쉴 수가 있었다. 바로 내 옆자리에 노동부차림의 한 거구의 미국청년이 있어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는다. 보스턴으로 간다고 대답했더니 자기도 그곳으로 간다면서 담배를 한대 달라는 것이다. 신탄진 한갑을 꺼내어 주었더니 고맙다는 예를 표시하면서 Korean이냐고 하기에 그렇다니까 자기도 軍人으로서 한국 仁川에 3年間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나이는 내 서툰 영어를 곧 잘 알아 듣는 것이었다. 2시간 30분가량 후에 비행기는 보스턴에 도착했다. 그런데 시카고와도 시차가 있어 밤 11시가 넘었던 것이다. 날이 어둡고 밤이 깊어가니 새로운 걱정이 생긴다. 낯선 곳에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다면 나 혼자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 하고 짐을 들고 出口 쪽으로 걸어 나오니 송영장에 약속한 金聖河 先生이 손을 흔든다. 얼마나 반가운지 실로 형언할 길이 없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동안 金聖河 先生에게는 너무나 신세를 많이 졌다. 숙소를 얻는데서부터 취사도구, 식료품 구입, 하바드大學에의 수속, 은행 우체국, 하바드 대학 지역 백화점 이용법 등을 일일이 안내해 주었고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별로 고생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Harvard大學의 Yenching Library에서 副研究員이라는 비교적 좋은 職名을 받고 우리 나라 古書판을 全的으로 맡아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 Harvard-Yenching Library가 소장한 우리 나라의 古書는 그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大略 3萬卷 가량이 되지 않을가 짐작된다. 그중 약 1萬여책이 미정리 상태로 書庫內에 쌓여 있었으며 그미정리 고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나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古書의 分類와 目錄은 내가 서울大學에 있으면서 奎章閣 10餘萬卷과 일사 가람문고 一萬여卷을 정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努力 하지 않아도 能率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分類는 주카이명이 編한 Harvard 大學 Yenching학사 和漢書分類表에 의하였고 目錄은 A.L.A.

Rule과 L.C. Rule을 적용하고 있으며 로마자 번자에 있어서는 맥클사이샤워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도서번호는 王雲五의 四隅檢字法을 使用하고 있었다. Yenching Library는 물론 미국 도서관에 있어서 한국 중국 및 일본 자료의 목록 작성은 1957년 2월 20일 L.C. (미국의회 도서관)에서 인정한 「중국, 일본 및 한국 자료의 목록을 위한 규칙과 편람」에 의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서문에 밝힌 바와 같이 A.L.A. Rules와 L.C. Rules에다가 동양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補充한 규정이다.

필자가 1958년 L.C.의 허가를 받아 이 규정을 번역 간행 했기 때문에 아는 바로서 동양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완전한 것이 못되어 많은 보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논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기회에 미루고 Harvard 大學의 全景이나 얘기하는 것으로 말을 바꾸기로 한다.

Boston과 Charles江을 격하여 Cambridge에 자리잡고 있는 Harvard 大學은 과거는 勿論 現在에 있어서도 世界 最高水準의 大學이라고 한다.

1636년에 設立된 이 私立大學은 800만에 달하는 무진장의 장서량 뿐만 아니라 美國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다는 것, 보다 堅實한 學風에 對하여는 世界 어느 大學도 그를 능가치 못하리라고 한다.

Harvard 大學 本部 앞에 John Harvard氏의 銅像이 있는데 이 분이 創立者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大學이 設立된 것은 1636년 10월에 General Court氏가 大學의 設立을 議決한데 起因하는 것이며, 創立者인 John Harvard氏는 그곳에 있었던 牧師로서 印刷業도 兼하였던 것인데 그가 別世하자 그의 藏書 329部 400책과 그의 遺産 半이 이 大學으로 寄附됨에 따라 1636년 General Court氏는 이 大學을 Harvard University라고 校名을 붙이는데 議決하였다는 것이다. 設立 當初에는 牧師의 教育을 目的으로 하였던 것으로서 古典에 依한 一般教養이 主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점차 一般大學의 性格으로 發展하여 19세기 후반에 單一の 必須制度를 버리고 선택과목 制度를 擇하게 되면서 現代 大學으로 確立된 것이다.

그런데 이 大學을 世界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데 그 功績이 가장 컸던 이는 C.W. Eliot라고 한다.

그는 Harvard大學에 總長으로 40年間 있으면서 과연 그가 남긴 공적이 어떠한가를 캠퍼스 後門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새겨져 있는 기념비를 보고서도 짐작이 간다.

Boston에서 Cambridge로 오는 地下鐵은 Harvard大學 正門앞이 終點이다. 終點에서 내려 마갈으로 나오면 로타리인데 여기를 Harvard 스퀘어라고 한다. 이 하바

드 스캐어에 자리잡고 있는 큰 백화점, 은행, 서점들은 大學에서 직영하거나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들이며 그 외의 大小 각종 상점 회사는 거의 하버드대학을 상대하거나 교수 학생들로 인해서 유지 되어간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日本과 미국에서 몇개의 큰 大學을 돌아보았지만 하버드大學의 構內같이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는 찾아 보지 못했다. 建物은 모두 100年前의 것 같이 古色이 완연한데 특히 메모리얼 홀은 中世의 西歐의 어느 한 城郭과 같이 古色이 장연하였다. 現代樣式인 제임스홀은 17층이나 되는 高層建物이지만 그외는 大部分의 4.5층의 諫瓦造 건물이다.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構內는 마치 公園과도 같다. 여름이 되면 아름드리 수목은 우거지고 通路가의 잔디는 파랗게 물들어 웅단같이 깔려있어 봄이 오면 마음놓고 딛굴수 있을것 같다. 파란잔디위에 男女學生이 앉아서 여가를 쉬는가하면 그 옆에는 다람쥐가 마음 놓고 기어다닌다. 하버드 構內도 이름 있지만 거기에서 번식하는 수만 마리의 다람쥐 또한 이름있는 것이다. 하버드大學에 와서 다람쥐와 함께 사진 한장 못 찍은 사람은 아예 하버드大學에 왔었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하나 건드리는 이 없고 잡으려드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놓고 構內를 쓰다니면서 먹을것을 찾을수 있을 것이며 또 構內에는 도토리 통얼매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람쥐의 서식처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가을이 되면 構內의 수목은 온통 단풍이 들어 그림에 나오는 정경 같기도 하다 美國은 땅도 넓거니와 수목도 많다. 특히 東北部는 數千마일을 달려도 住宅와 道路外에는 수목으로 울창하여 人足의 여지도 없을 정도이다. 수목은 소나무 전나무 외에 가래나무 등 잡목이 섞여 온대에서 한대로 넘어가는 점이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있지만 아무도 베어가는 사람도 없고 실은 사람도 없이 그대로 生成하여 우거진 森林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大學生들은 몸치장에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다. 男子학생도 女學生과 같이 머리를 길러 산발하고 옷은 해진 그대로 입고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不良하거나 「히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學生들에게는 浮浪하거나 아무때나 즐겨 놀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다. 강의에 있어서 출석은 엄격한 것이며 수시로 치뤄야하는 中間試驗 그리고 每日 읽어야하는 분량 많은 숙제 때문에 그들은 코피를 흘리면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해야 낙제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니 몸치장할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점심 식사할 시간 여유도 없어서 샌드위치를 사들고 강의실로 가면서 먹는 학생은 도처에서 발견 된다. 그러나 오늘 날 미국에 있

어서 고민거리의 하나가 이 히피族 問題라고 한다. 이 문제는 美國社會가 當面한 社會問題로서 性은 勿論 개방적이다. 男子는 말할것도 없고 때로는 女子들이 윗통을 완전히 벗어 부치고 미친듯이 춤을 추는 것이었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미쳐서 날 뛰는 것 같다. 나로서는 Black power와 히피 문제의 성격이 장래 어떻게 발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그들에 대하여 너무나 아는 바가 적다.

내가 갔었던 Boston에 있어서는 黑人에 對하여 공공연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白人들이 黑人을 피하려는 氣色은 엿볼수 있었고 특히 아파트는 좀체로 黑人에게 세를 주려 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美國內에 있는 黑白人은 누구나 그들이 이루어 놓은 그 거대한 文化와 文明은 결코 파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黑人 문제 보다도 더 어려운 일로 등장 하는 것이 히피라고 한다. 나는 日曜日이면 으레히 히피가 모여 노는 하버드 스캐어에 가본일이 있었다. 그들은 머리는 길러 산발하고 옷은 남루한데 신발은 아예 신지도 않았다. 「마리화나」라는 마약을 피우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그러는 가운데 미쳐서 人生의 황홀경에 헤메는 즐거움을 찾으려는 것이다.

美國에 있어서는 土曜日과 日曜日 兩日間이 公休日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지는 이들은 대개의 경우 金曜日 저녁 일찌감치 슈퍼마켓에 가서 몇일간 먹을 빵, 우유, 계란, 고기, 등을 사다가 냉장고에 저장해두고 나서야 워크앤드를 가지게 된다. 月曜日서부터 金曜日까지 5일간은 일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은 엽을 돌아 볼 여유도 없어 정성없이 일하거나 공부한다. 그리고 金曜日 下午 5時以後부터 日曜日까지 2日間은 마음 놓고 쉬면서 자유를 즐길수 있는 時間이다. 土曜日은 野外로 놀러나갈 계획이 없는 우리들 外國人은 아는 집에 모여서 포커를 즐기는 것이 일수이고 다음 날은 11時경에 기상하여 아침 점심을 겸해 먹고 Charles 江 쪽으로 나가 日曜日 오후를 보낸다. Harvard大學 正門에서 Charles강 쪽까지는 10분가량 걸으면 된다. 강언덕은 넓은 운동장 같은데다가 파란 잔디가 잘 자랐기 때문에 男女老少가 이곳을 찾아와서 日光浴도 하고 공치기도 하고 누워서 낮잠도 자고 하는 江邊의 공원이다. Charles강에는 모타보트를 타고 즐기는 사람, 조그만한 유람선도 오르내린다. 물의 오염 때문에 水泳은 금지되어 있다. 日曜日은 대개의 경우 점심을 먹고 오후 2時쯤 Cambridge Common으로 나간다. Common이란 都市內에 있는 公園을 말하는데 이 Cambridge Common은 우리 나라 서울의 파고다공원 두배 정도의 넓이로서 그리 큰 공원은 아니다. 그리

卷八：述異部に 靈異，神奇，巫祝，遇邪魔，幽怪，異配，物感，報主，誠力，陰德 등 11條 22項이요 拾遺部に 相業，互諫，風情，規諷，怪事，警悟，仙蹟，清福，幻夢의 9條 18項 모두 40項이다.

그런데 卷의 次序에 있어서 다른 것은 별다른 것이 없으나 卷八의 첫머리에 卷15라 하였고 卷八의 後半에 卷16이라 하였으니 처음에는 各冊을 2卷씩으로 나누어 總 16卷으로 만들었던 것을 뒤에 傳寫하는 사람에 의하여 8卷 8책으로 만들면서 15, 16은 그대로 두었던 것 같다. 또한 卷 8의 첫머리에 「第一百十二局·述異部-」이라고 쓰여 있으며 그 이하 拾遺部の 最終項에서 「第三百十局」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原本에는 모두 部에 따라 局을 정하고 順次를 매겨 나갔던 것인 듯 하다. 現在 대로의 全體의 統계를 보면 12部 72條 255項에 달한다.

어쨌든 이것은 類書中 가장 방대한 것이며 수집한 범위로 보아 史談과 野談으로 著者が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 망라된 듯하며 또한 이것은 量이 많은 책으로는 비교적 연대가 다른 것보다 늦게된 것임은 既述한 靑丘野談의 標題와의 相異에서도 알 수 있고 去來의 野談이 몇가지 유명한 사람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그 文章이 극히 졸렬하여 어떤 것은 제대로 成文이 되지 못한 것도 많았는데 著者が 이를 潤色하여 文章의 어색한 곳을 가다듬어서 그다지 눈에 설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도 또한 本書가 다른 책보다 年代가 멀어지는 것임을 추정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本書는 18世紀末까지의 類書를 總集成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높이 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儒賢，性行，節義 등 條에는 대부분이 歷史의 人物에 관한 事實이다. 예를 들면 李舜臣，金應河，朴彭年，洪翼漢 등의 忠義，許浚，柳瑞 등의 醫術，洪純彥，柳鎮恒 등의 奇行 같은 것은 모두 實在한 人物들이다. 그러나 그들에 관한 說話라 하여 반드시 진실성 있는 사실로 보기는 수궁이 되지 않는

것도 많다. 또 어떤 것은 姓名은 분명히 나와 있으나 그가 歷史에 나타난 인물이 아닌 사람도 많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다하여 반드시 架空人物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金尙書某，湖西一士人，蔣都會 등 적당히 姓名 붙여서 애기를 진행시키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줄거리를 小說化하여 과장 부연한 것이 대부분이며 어떤 것은 民間에 傳하는 神仙，鬼神，抓怪，蛇妖 등의 說話를 사실화시키기 위하여 架空의 人物을 만들어 넣은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類書에서는 禦眼楮이라 村談解頤에 나오는 것과 같은 淫談이 상당히 있는데 이책에서는 그런 종류는 될 수 있는대로 끼어 넣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듯한 형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미 列擧한 部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부문에 걸친 奇談逸事를 모조리 망라한 만큼 우리의 史話，野談의 寶庫라 할 수 있다.

中國에서는 일찍 戰國時代부터 이런 문헌이 있어 莊子에 「齊諧志怪者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곧 怪談을 적어 놓은 齊諧라는 책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漢書藝文志에는 虞初의 周說 943편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였고 唐宋以來로 수없이 쏟아져나온 類書는 마침내 章回小說로서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도 古代부터 이 종류의 문헌이 있었음은 既述한 三國遺事，東明王篇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李朝時代에 이르러 儒學이 知識界를 지배하면서부터 이런 것을 稗官雜書라 하여 의식적으로 疎遠 내지 排除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수집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小說로서의 발전도 극히 미미한 상태로 명맥을 갖추었을 뿐이었는데 다행히 高官을 지낸 文臣의 손에 의하여 이 集成本을 남기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우리의 풍속 신앙, 사상, 거기에 흐르는 민족의 정신을 탐구함에 있어 本書는 가장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또한 國文學을 研究함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7면에서 계속)

나 이곳은 日요일이 되면 美國의 히피가 모여드는 곳으로서 이름 있는 公園이다.

다른 것은 지면관계로 더 말하기 어려워서 이 글을 끝맺기로 하고, 우리 나라에서 Boston을 가장 먼저 찾아 간 바 있었던 舊韓國時代의 名士 俞吉潁氏에 관해서 들은 바를 적어 보기로 하자. Boston市에서 海邊가를 따라 東北쪽으로 約15마일 정도 가면 Salew이라는 都市가 있다. 筆者도 이곳을 일부터 찾아 보았지만 이 Salew은 Boston의 위성도시로서 19世紀 前半期에는 中國의 廣東과 무역하던 港口였다고 한다.

그런데 1883年 7月下旬에 親善使節團의 一員으로 수행했던 俞吉潁氏는 귀국치않고 當時 Salew市의 Edward Morse 教授의 指導로 Dummer Academy에 入學하여 修學하다가 1884年 10月에 甲申政變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해인 1885年 가을 한국에 돌아 왔다고 한다. (韓國開化史研究 李光麟 著 一潮閣 1969. p258 ~274 參照)

이와 같이 마사츄세츠州에 있는 Boston은 온 美國의 開拓史나 獨立史上 重要視되는 地點임은 말할 것도 없고 韓國開化時代의 歷史에서 본다해도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하겠다.